

10 오피니언

사설

코로나19로 무너진 학생사회, 선거로 복구할 때다

선거가 한창이다. 학교 밖도 마찬가지다. 가장 이목을 끈 것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다. 혼란스러웠던 미 대선 결과의 이제 가닥이 잡혀가는 모양새다. 10일(현지시간)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“미국이 돌아왔다(America is back)”고 선언했다. 바이든의 선언은 그의 선거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. 그는 대선 기간 줄곧 ‘미국의 정신을 복구하자’는 슬로건을 내세웠다.

민주당이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이 이런 그에게 공감했기 때문이다.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탄생시킨 지난 2016 미 대선 결과 반복되는 것을 경계한 많은 이들이 투표에 참가했다는 분석도 있다. 올해 미 대선 투표율은 1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. 바이든 당선인은 역대 후보 중 사상 최고 득표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. 말 그대

로 민주당 지지자들의 대역전 승리다.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사태 속에서도 투표 열기가 뜨거웠던 것은 이 때문이다.

우리학교 상황은 정반대다. 총학생회(총학)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‘코로나19로 인한 낮은 투표율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. 최인성(생물학 2016)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“혹시나 선거분위기가 안 나서 전만큼 투표율이 나올지 모르겠다”는 걱정을 내비쳤다.

문제는 그의 걱정이 '너무나 그럴듯해 보인다'는 것이다. 코로나 19 사태는 학생 자치활동에 불가피한 제약들을 가져왔다. 양 캠퍼스 총학은 공약을 수정 이행하거나 대안을 마련하는 등 당초 제시한 공약들을 최대한 실천하려는 모습들을 보였지만 역부족이었다. 서울캠코스 총학 '무빙'은 당초 내세웠던 공약의 34%를 이행

하는 데 그쳤다. 국제캠퍼스 총학
‘워쿠맨’은 이보다 조금 나은 48%
를 이행했지만, 여전히 아쉬운 건
사실이다.

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총학이 학생 자치를 이뤄낼 것이란 기대감은 한없이 낮아진 상황이다. 특히나 비대면 수업으로 학교에 발을 들이지 않는 학생들은 총학을 마주할 일도 없다. 그들은 총학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 턱이 없다. 상황이 이런데 ‘투표율’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. 코로나19 핑계를 대지 않더라도 총학 선거 투표율은 대체로 낮은 편이었다. 최 위원장의 노파심은 현실이 될 태세를 갖추고 있다.

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투표를 ‘건너뛰’ 일은 아니다. 기계적 선택도에 따라 투표할 일은 더욱 아니다. 선거는 언제나 중요하다. ‘선거에 대한 무관심’은 고스란히 ‘유권자들에 대한 무관심’으로 돌

아오기 때문이다. 코로나19로 학생 사회는 많은 고초를 겪고 있다. 그러나 무력함에 동조해선 안 된다. 오히려 학생 사회를 대변하는 총학으로 하여금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때다.

마치 바이든의 선언과 같이 “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학생 사회를 복구하자”고 말하는 총학을 지지해주어야 할 일이다. 그들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으면 투표를 통해 조직의 정당성을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. 후보자들은 내년에도 비대면 체계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공약을 내세워야 한다.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구성원들의 이해와 기대를 충족시켜줄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. 유권자들은 이러한 후보들의 공약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.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‘잃어버린 1년’을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.

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| 빅데이터로 본 경희

진실을 보는 눈

박창원 기자
macpark342@khu.ac.kr



세계보건기구는 올 1월부터 3월
까지 전 세계에서 최소 800명 이상
이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로 사
망했다고 밝혔다. 극독인 메탄을
을 마시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
있었다던가, 헤어드라이기 바람을
가까이에서 맞으면 바이러스를 소
독할 수 있다는 등의 가짜뉴스가
나돌았기 때문이다.

현대경제연구원은 2017년에 <가짜뉴스(Fake News)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>을 발간했다.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뉴스 중 가짜뉴스가 1%일 때 이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연간 약 30조 9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.

이제는 정보의 수용뿐만 아니라 생산도 편리해졌다. 누구나 SNS를 통해 정보의 생산자가, 전달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다. 그저 장난이든 어떠한 목적을 가졌든 가짜


뉴스가 만들어지고 나면 쉽게 확산되고 재생산된다. 이때 빛을 발하는 것이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다. 데이터 자체가 왜곡된 것이 아니라면 데이터는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.

학보사 기자가 된 이후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. 하지만 코로나19로 학교에 학생이 많지 않으니 학교가 운명이 되는지, 사람들이 학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체감하기 쉽지 않았다. 그러나 이번 취재를 통해 우리학교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. 아주 많은 정보를 도출해내지는 못했지만 이것만큼은 깨달았다. '진실을 바라보는 눈'을 뜨기 위해서는 진실에 가장 가까이 접근해야 한다는 것, 그리고 데이터가 그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.

우리는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. 직접 데이터를 찾아보며 해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세상을 바르게 보는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한다. 독자를 위해 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기자가 되도록 노력하며 그 고정을 도울 것이다.



만평 진실의 문아 열려라

<h1 style="margin: 0;">경희대학교</h1>	
<p>교시 문화세계의 창조</p> <p>교훈 학문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</p>	

대학주보
1955년 5월 12일 창간

발행인 한균태	편집인 남윤재	편집장 김지원
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

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(회기동)	Tel 02-961-0093~5	
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(서천동)	Tel 031-201-3230~2	

인터넷 대학주보 <http://media.khu.ac.kr/khunews>
이메일 khunews@khu.ac.kr

제작 청솔디자인 | 인쇄 오피파엔디